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대회

본부 시작으로 제주까지 릴레이 규탄대회 진행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반대하며 미얀마의 자유민주주의를 촉구하고 무고한 시민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학살행위를 규탄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회원 미얀마 반민주 쿠데타 규탄대회’를 가졌다.

자총은 3월 24일 본부에서 본부 임직원과 17개 시도지부 회장 및 임직원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화상으로 모인 가운데 미얀

마 국민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는 전국 17개 시도 릴레이 규탄을 시작했다.

박종환 총재는 규탄대회에 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및 무고한 국민에 대한 학살행위를 규탄한

다”고 말했다. 화상으로 릴레이 규탄대회를 선포한 후 자총 본부 앞에서 박종환 총재, 그리고 최역 사무총장 및 주요 임직원들이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규탄 구호를 제창했다.

이후 서울시지부 등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에서 5~10명 내외의 자총 회원들이 릴레이 규탄 성명 낭독 및 규탄 구호 제창을 하는 릴레이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총-산림청 업무협약 체결

자총은 4월 7일 본부 회의실에서 국리민복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실전을 위해 ‘한반도 숲 가꾸기’ 국민 캠페인을 추진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자총 박종환 총재, 최역 사무총장과 산림청 최병암 청장, 이미라 산림산업 정책국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총과 산림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한반도 숲 가꾸기 국민 캠페인 공동 추진 ▲평화의 나무 심기·숲 조성 등을 통한 평화 활동 ▲탄소 중립과 평화의 숲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남북산림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당사자 기관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 발굴 및 상호 발전·우호 증진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대사 등 본부 예방 간담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3월 16일 자총 본부를 방문, 박종환 총재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29일에는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의 허강일 관리처장이 내방했으며, 또 이날 서울중부경찰서의 류미진 서



장도 박종환 총재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램지어 교수 망언 규탄

자총은 4월 12일 미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을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자총은 “램지어 교수의 망언은 논문을 가장한 거짓 주장으로 학자로서의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위명하에도 더 이상 학술적 가치가 없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임을 적시하며 자총 350만 회원, 해외 32개 지부와 함께 램지어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강원 산불피해 및 수해복구 지원’ 감사패 받아

자총이 강원도로부터 강원 산불피해 및 수해복구 지원 유공으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자총 박종환 총재는 4월 8일 본부 접견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 왼쪽)를 만나 2019년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원과 2020년 철원 수해복구 지원에 자총이 앞장선 것에 대한 강원도민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자총 박종환 총재는 감사



패를 받은 후 “감사패를 전달해주신 강원도민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운동단체로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뜻하는 국리민복 가치관을 바탕으로 봉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순 전국여성협의회장에 임명



박종환 총재는 4월 12일 본부 접견실에서 정영순

전국여성협의회 회장(사진)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전국 여성회 현안사항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